

'백련결사' 선풍 멀친 고찰



◇원묘국사 요새가 머물며 새로운 신앙결사를 조직해서 천태교학을 강론하고 참선수행을 병행했던 강진 백련사.

가람의
장면들
38

백련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고려 불교의 드라마틱한 역사적 전개과정은 곧바로 고려의 정치사나 문화사의 중요한 줄기가 된다. 태조 왕건이 전국의 호족들을 아울러 호족 연합국가로 출발한 고려 초기에 불교계는 백가정명의 교종과 선종, 길교계까지 다양한 종파와 학파들이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나 가지가 많으면 바람도 심한 법. 종파 간의 경쟁은 도를 지나쳐서 대립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교종계열과 선종계열의 대립은 세속적인 싸움을 방불케하는 고려 사회의 큰 문제였다. 이에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주도했다. 그러나 왕자의 신분이었던 의천으로 대표되는 천태종은 개경을 중심으로 여전히 귀족층에 기반을 두어서 정치적 성향을 버리기 어려웠다.

이 시기에 즈음해서, 문벌귀족 중심의 고려 사회에서 실용을 받았던 무신 세력은 이른바 무신의 난을 일으켜 문벌 귀족

교관겸수 도량...국사·대사 16명 배출

조선조 들어 쇠퇴...정약용 자주 들러

들을 숙청하면서 고려 사회의 실세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귀족 불교, 특히 교종 계열과 천태종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 공백을 메꿀 새로운 종파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보조국사 지눌이었다. 그가 주도한 정혜결사는 세속 정치와는 결별하여 산 속의 수도원에 서 본연의 수행과 참선에 정진할 것을 천명했다. 지눌은 선의 입장에서 교를 받아들여야 했고, 실제로 많은 교종의 승려들이 지눌의 조계종으로 귀의하게 된다. 옛 귀족들과 인연이 깊은 교종이나 천태종을 탐착치 않게 여기던 무신정권은 새로 성장하는 조계종을 지원하게 된다.

후에 원묘국사가 된 요새는 지눌과 동문수학하던 사이로서, 한때 지눌의 수선사에도 참여했지만, 오히려 기존 천태종의 교관겸수 사상이 올바른 길이라 확신하게 된다. 그의 명성과 수행법을 흠모하던 전라도 강진 일대의 지방 토호층은 요

새를 모셔와 그가 머물 사람을 중창하니 바로 만덕산 백련사였다. 그는 백련사를 거점으로 새로운 신앙결사를 조직해서, 천태교학을 강론하고 참선수행을 병행하게 된다. 그는 정치와 철저히 결별할 것을 강조하여, "개성에는 50년 동안 들어가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백련결사는 지방에 뿌리를 내린 민중적 불교로 성장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미 군부 권력과 밀착되기 시작한 지눌의 수선사에 비해서, 이러한 출세간적 태도는 지방민은 물론 전국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아 교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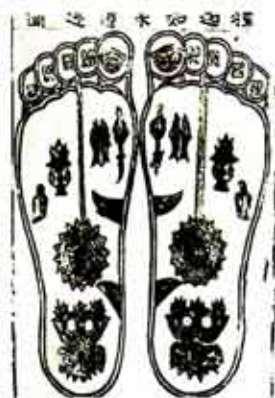
고려 중기에 벌어졌던 크고 작은 결사운동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던 불교의 타락상을 반성하고, 수행과 정진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혁신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운동이 발전하려면, 대규모 승단의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토대가 필요하게 된다. 백련결사가 강진 만덕산에 기틀을 마련한 것은 두 가지 조건 때문이라 보인다.

첫째, 전라도의 이 지역들은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이며, 고려조에서는 차별을 받은 소외된 지역이라는 사회적 측면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과 경야를 끼고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여 부유한 지방 토호층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백련사는 그다지 높지 않은 만덕산 중턱에 자리잡았다. 앞을 내려다보면, 섬돌이 정점이 떠있는 다도하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현재는 7~8동의 당우만 있는 작은 규모의 가람이지만, 정성기 때는 동원과 서원의 두 가람으로 구성되어, 동원에 20동, 서원에 10동의 건물이 있었던 큰 사찰이었다. 현재 대웅전 서쪽, 응진전 앞 마당에는 고려 중기의 문신 최자가 기록한 사적기가 놓여져 있는데, 바로 이 부근이 서원 자리였을 것이다. 일세를 풍미한 백련결사에는 수백명의 스님들이 거처했고, 경내 곳곳에 건물터로 짐작되는 넓은 땅과 기단석 등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사의 시작은 매우 순수했지만, 군사정권은 순수한 종교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집권 독재자였던 최우는 수선사를 지원하는 한편, 그에 대응할 백련결사도 집중 후원하였다. 백련사는 요새 이후로 8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권세는 곧 종교적 몰락을 의미한다. 조선조 들어서 백련사는 한낱 지방 사찰로 명맥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백련사의 선종만은 면면히 이어져 조선후기에 8명의 대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19세기 초, 강진 땅으로 유배된 다산 정약용은 백련사 서쪽 2km 되는 지점에 다산초당을 짓고 은거하면서, 백련사의 고승들과 교우했다. 절에는 다산이 직접 쓴 '만덕사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 역시, 순수했던 신앙결사가 정권에 이용되면서 쇠퇴하게 되는, 정치와 종교의 비운의 관계를 안타까와 했을 것이다.



◇불족도에 나타난 권문양.



◇거주사 원묘국사승모탑 비 귀부의 권문양.



◇14세기 중반에 제작된 고려 불화에 나타난 권문양(일본 근진(根津)미술관 소장)

권은 불교의 상징이다. 사찰 건물에 불교의 상징으로 가장 흔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밖의 건물 서까래의 기와, 탑비의 귀부, 불화 등 여러 곳에 나타난다.

권은 범어로 스바스티카(svastica)라 하며, 원래는 글자가 아니라 상징형이다. 이 상징형은 중국에서 권이라는 글자로 개칭되기 이전부터 고대 인도를 비롯해 페르시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의 장식미술에서 사용되었다. 브라만교와 자이나교 등에서도 이 문양을 사용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슴과 발 등에 나타나는 이 문양을 상서로운 상, 곧 길상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부처의 경지를 나타내는 불심인(佛心印)으로도 사용했다.



◇불국사 대웅전 합각벽에는 삼보문양과 함께 권문양이 그려져 있다.



◇권문양은 단청의 문양에도 자주 등장한다. 석남사 명산전 단청.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권

끝없이 도는 불심인

'길상'·'완전' 상징...불화·귀부·가람에 등장

권이 오른쪽으로 도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우주와 태양계의 회전 운동에 동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찰들은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우주지연의 정상적인 운동원리로 여겼으며, 그 반대방향인 왼쪽으로 도는 것을 우주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 이를 배척했다.

▲부처님 발바닥에 나타난 만 문양

권문양은 불교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는데, 인도 쿠산왕조 때의 아라바티 조각과 마투라 조각의 불상상체 등에 나타난다. 또 굽타왕조 때 만들어진 아잔타석굴의 불족도(佛足圖)와 벽화와 기둥에 새겨진 조각, 불화의 배경 장식문양에도 권문양이 나타난다. 불교미술에 나타난 권 문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대 인도로 마가다국에 있는 족적이 남아있다. 석가모니 부처가 입적하기 직전에 남았다고 전하는데 (대당사역기)에 의하면 탑 부근의 정사(精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돌에 부처님의 족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삼장法師 현장이 친히 이 족적에 예배하고 스스로 본을 떠서 중국에 가져왔으며, 지금은 산시성 방주에 있는 옥화산의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부처님의 족적에 표현된 다섯 발가락과 발바닥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권문양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불화에 나타난 만 문양

고려시대 불화에서 권문양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불화에 보이는 권문양 역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이 주류를 이룬다. 용인 호암미술관 소장인 이미타상존도에는 부처의 가슴부분에 권문양이 나타나고, 삼성출림박물관 소장인 (김지은니묘법연화경)의 표지에도 권문양이 보이는데, 모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이다. 고려시대 불화 가운데 일본 교토 치온인(知恩院)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와 도카이인(東海庵)에 있는 이미타례도 등에서도 권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미술에 나타난 만 문양

예전 용문사 대웅전에 걸려 있는 목각 탕화 역사의 상단부분에 오른쪽으로 도는 권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영주 부석사 소장의 괘불에는 왼쪽으로 도는 권문양이 석가모니 부처의 가슴에 새겨있다. 또 구례 현운사 경내에 있는 조선시대 돌절구에 새겨진 문양도 같은 형태다. 조선시대에 와서 왼쪽으로 도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흔해져 왔다. 고승 건불사의 경우 두 개의 돌기둥에 회전방향이 각기 다른 권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 011 SK Telecom
-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 016 한통프리텔
-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 019 LG Telecom
- 5. 인터넷채널 ⇨ 7. 정보 ⇨ 불교정보
- 017 신세기통신
-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 018 한통엠닷컴
-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산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 등 D/B검색과
메일배달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